

# 일본어 부사의 오용과 지도방안에 관한연구\*

-한국인 초·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朴美淑\*\*

p-roosia@hanmail.net

## 〈 目 次 〉

- |              |                |
|--------------|----------------|
| 1. 서론        | 4. 분석결과 및 지도방안 |
| 2. 선행연구      | 5. 결론          |
| 3. 조사방법 및 내용 |                |

Key word : 부사(Adverb), 오용발생(Error Occurrence), 오용분석(Error Analysis), 지도방안(Teaching Method), 한국인일본어학습자(Korean Learners of Japanese)

## 1. 서론

근래의 외국어교육은 문법중심의 지식 전달이 아닌 실생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배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중심교육으로 인하여 문법교육의 중요성이 퇴색되기도 한다. 그러나 표현자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는 의사소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 역시 강조되는 바이며 이는 다양한 오용분석과 고찰에 관한 연구로서도 알 수 있다.

이 중 부사는 기타 주요성분에 비해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용분석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사와 동사인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위하는 생활 속에서 생기(生起)하는 다양한 사실들은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1996)

\*\* 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일본어강사, 일본어학

객관적 의미내용의 전달 뿐만 아니라 사태에 관한 표현자의 심적(心的)태도 및 인식상태를 다양하게 표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오늘은 춥다]라는 객관적 사태를 [今日は(とても/非常に/大変)寒い]로 표현함으로써 사태에 관한 화자의 인식태도를 엿볼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부사는 사태에 관한 화자의 다양한 심리와 시점을 반영하여 보다 원활하고 풍부한 상호의사전달을 가능케 하는 운할유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부사의 올바른 선택과 적절한 사용은 화자의 심적태도의 투영이라는 측면에서 담화에서의 기능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목(着目)하여 한국인학습자에게서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부사오용을 분석, 오용패턴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부사교육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방증으로서, 학습자의 오용예측과 이를 토대로 한 이후의 오류방지를 위한 교육실천으로의 연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교사에게 있어 효과적인 부사교육의 지도맵(map)으로서 활용되어 향후 부사교육의 실천적 방향제시에 유효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학습자는 올바른 부사사용으로 원활한 일본어소통능력의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선행연구

2000년대의 문법교육연구는 표현분석, 문법이론 등을 넘어서 사용실태나 습득과정, 설명방법 등의 실천적 활용방안을 보다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의사소통중심의 교육으로 적절하고 적법한 표현을 위한 문법의 이론적 측면과 함께 실용적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서 일본어의 학습목표나 주위 환경, 모어와의 차이 등에 알맞은 오더메이드(order made)문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의 필요성과 정착화 속에서도 학습자의 다양한 오용을 접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新屋映子외(2003)에서 모달리티, 시점과 정보, 명제, 어휘적 의미에서의 오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중 부사는 어휘적 의미와 관련된

항목으로 「たいへん」「とても」등의 정도부사에 관한 오용을 지적하였다.

이러 조남성(2003)(2006)에서는 한국인 일본어전공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오용분석과 함께 한국인과 일본인교사 63명의 오용평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어휘론에서의 품사 바뀔, 동사(유의어), 명사는 초·중급에서의 오용이 많은 반면 조동사「だ(긍· 부정)」는 학습수준에 따른 변화가 없다. 이는 부사에서도 유사하며 구체적으로 「最高(×)→最も(○), だいたい的→だいたい, 初め(×)→初めて(○), 初めて(×)→初め(○), 必ずしも(×)→必ず(○)」등의 오용이 보인다. 특히 한국인교사의 오용평가에서 나타나지 않은 상급에서의 부사오류를 일본인교사는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市川保子(2004)에서는 초·중급전반에서 배우는 50개 부사를 대상으로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이스라엘을 포함한 22개국 학생들의 작문에서 오용을 발췌하였다. 이를 탈락(「まず、野球のチームが○(→今より)おおく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부가(「天気予報によると、あしたは必ず(→○)雨が降るらしい」), 오형성(誤形成)(「したがって-たしがって」), 혼동(「あまり→あまりに」), 위치(「あした必ず(→○)皆○(→必ず)学校に来てください」), 기타의 6종류로 세분하였으며 이중 혼동에 의한 오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외의 오용연구를 비롯하여 일본어 문법교육의 연구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로 최은혁(2013)이 있다. 이에 따르면 2000~2009년까지의 오용분석은 이전과 같이 조사가 가장 많았으나 품사별, 표현별로도 다양화되었다. 이어 2010년대에 들어 오용분석연구는 급감하는 한편 여전히 동사와 조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일본어문법에 관한 오용분석 중 가장 활발한 연구는 조사와 동사에 관한 항목이며, 이에 비해 한국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부사오용은 일부 부사에 국한되어 소개되고 있다. 이는 부사가 문의 필수성분이 아닌 부차성분으로서 기타 주요성분에 비해 일본어교육에서 간과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부사는 객관적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심리와 시점을 반영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조남성(2003)에서의 상급에서의 부사오용에 대한 일본인교사의 엄격한 평가로서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부사오용이 원활

한 커뮤니케이션전략을 위해 지양되어야 할 중요요소임과 함께 초·중급에서의 부사정용(正用)화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데이터의 양적 측면을 보완하는 한편, 초·중급에서 활용도가 높은 부사중심으로 한국인 학습자의 오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 3.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는 설문지방식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먼저 조사 항목의 부사채택을 위하여 초·중급용 교재<sup>1)</sup>에서 빈도 높은 부사 31개를 선정하고<sup>2)</sup>, 이를 중심으로 기존 교재의 예문을 인용 혹은 재구성하여 설문내용을 구성한다. 이는 시판 교재에서 다용(多用)되고 있는 보편적인 예문을 중심으로 하여 부사 및 부사 이외에서 학습자의 미습(未習)·기습(既習)항목에 의한 차이를 최소화하고, 또한 자유작문(반(半)조건 작문)에서 제시할 부사어를 한정하여 연구자의 의도된 연구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1 조사 참여자

대학에서 일본어전공자(일본문학 및 일본지역학 포함) 2, 3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전공수업과 교양일본어(초급1, 2과정포함)수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1) 초급교재(회화) 5종(각1,2권) 10권과, 중급교재(회화·독해) 4종(이 중 3종은 각 1,2권으로 구성) 7권을 분석함. 일반적으로 초급은 문자와 발음으로 시작하여 사역수동표현 혹은 경어까지의 학습항목을 다루고 있으며, 중급은 초급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언어4기능의 응용 및 심화에 중점을 두어 종합적인 운용능력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신출어휘는 초급 약2,000자, 중급 약1,000자 내외로 제시하고 있다.

2) 「あまり, いくら(~でも), いちばん, 必ず, きっと, 実は, ずいぶん, すっかり, ずっと, ぜひ, 全然, そろそろ, たいへん, たくさん, たぶん, だんだん, ちょっと, どうぞ, 特に, とても, はじめて, 非常に, また, まだ, もう, もし, もっと, やっぱり, ゆっくり, よく, よろしく」

4개교 10클래스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 및 학년별 구성은 아래와 같다.

[설문 I]: 201명(전공122명(1(5)/2(51)/3(43)/4(18), 교양79명(33)<sup>3)</sup>)

[설문II]: 136명(전공67명(1(4)/2(37)/3(10)/4(16), 교양69명(26))

[설문III]: 187명(전공109명(1(4)/2(29)/3(43)/4(15), 교양78명(28))

[설문IV]: 141명(전공64명(1(2)/2(38)/3(10)/4(10), 교양77명(27))

## 3.2 조사 기간 및 방법

조사 기간은 2015년 9월~12월, 2016년 3월~6월, 9월~12월이며, 조사 방식은 설문지조사 및 작문과제를 통한 방식을 취하였다. 작문과제 방식에서는 사용할 부사어를 제한한 조건작문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사전사용을 최소화하여 정형화된 예문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제시된 설문문항 혹은 부사어의 의미 및 용법을 모르는 경우는 무(無)표기를 원칙으로 하여 우연에 의한 정답률상승을 지양하였다.

## 3.3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 3.3.1 [설문 I]의 내용 및 분석

[설문 I]은 학습자에게서 의미상·용법상 알맞은 부사선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조사항목은 「あまり, きっと, 実は, ずいぶん, ずっと, そろそろ, だんだん, ちょっと, 特に, 非常に, まだ, ゆっくり, よく」이며, 부사의 의미상 적합성과 구문상의 공기(共起)관계 등을 토대로 하여 각 문항에서 제시된 부사를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14, 15는 정도부사 이면(裏面)에 내재되어 있는 평가성을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이외에 1, 8, 9의 정답은 부사는 아니나 함께 제시된 부사와의 용법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3) 학년 및 전공의 무표기는 제외하였으며, 교양수업의 경우 전공1학년생의 수강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 전공1학년의 인원수만을 표기하였다.

분석은 설문 전체항목에 대한 불응답을 제외한 후(단 개별항목에서의 무표기는 오답으로 처리), 각 항목의 오답을 백분율로 환산하였으며, 구체적인 학습자의 오용과악을 위하여 문항별 오답내역으로 재분류하였다. 설문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분석결과는 4장<표1>과 같다.

[자료1]설문 I 4)

I. 다음 중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1. 昨日誰きのうだれと買か物ものに行きましたか。(a.みんな b.一人で c.いっしょに)行きました。
2. もう外国人がいこくじん登録とうろくをしましたか。いいえ(a.もう b.まだ c.また)です。
3. 9時ですね。(a.そろそろ b.今 c.あとで)失礼しつれいします。
- 4.今日は(a.とても b.よく c.あまり)寒さくないです。
5. 英語えいごが(a.たくさん b.よく c.全然)わかります。
6. 東京とうきょうは大阪おおさかより(a.ずっと b.いちばん c.どちらも)人ひとが多いです。
7. 日本語にほんごがあまりわかりませんから。(a.だんだん b.速はやく c.ゆっくり)話はなしてください。
8. 相撲すもうを(a.なかなか b.まず c.一度も)見みたことがありません。
9. もう6月じゅうごつきです。(a.最近さいきん b.次に c.これから)(a.だんだん b.そんなに c.たくさん)暑あつくなります。
10. あまり食べませんね。(a.もちろん b.本当に c.実じつは)ダイエツトをしています。
11. ミラーさんは(a.きっと b.ぜひ c.だいたい)来きると思います。
12. パーティーの料理りょうりで(a.全部ぜんぶで b.みんな c.特に)野菜やさいカレーカレーがおいしかったです。
13. (a.ちょっと b.早く c.すく)待まちってください。
14. (a.ずいぶん b.なかなか c.非常ひじょうに)髪かみが長ながくてうっとうしい。
15. (a.ずいぶん b.なかなか c.非常ひじょうに)髪かみが長ながくて素敵すてきだ。

3.3.2 [설문II][설문IV]의 내용 및 분석

[설문II]는 제시된 부사를 사용하는 반(半)자유작문, [설문IV]는 부사를 포함한 한국어문장을 일본어로 바꾸는 조건작문으로 제시하였다. [설문II]의 조사항목은 [자료2-1]과 같으며, [설문IV]는 「いくら~ても(6), かならず(8), きっと(16), ずいぶん(11), すっかり(12), ずっと(比較14), ずっと(時間15), ぜひ

4) 1~13번은 『민나노일본어(초급2)』 p.128, 14~15번은 『日本語の視点』 p.98에서 발췌.

(2), 全然(13), たくさん(5), たぶん(4) だんだん(3), ちょっと(17), どうぞ(18), とても(19), はじめて(10), まだ(9), もう少し(1-1), もし(20), もっと(7), ゆっくり(1-2),<sup>5)</sup>등의 부사를 상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오답을 확인과 함께, [설문Ⅳ]는 구체적인 오용내용을 분석하여 오용별 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 [자료2-1]설문Ⅱ

##### Ⅱ. 다음 부사를 사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어주세요.

1. あまり 2. いちばん 3. 必ず<sup>かならず</sup> 4. ずいぶん 5. ずっと 6. ぜひ<sup>ぜい</sup> 7. 全然<sup>ぜんぜん</sup> 8. そろそろ  
9. たぶん 10. だんだん 11. ちょっと 12. どうぞ 13. はじめて 14. また 15. まだ  
16. もう 17. やっぱり 18. よく 19. よろしく 20. もし

#### [자료2-2]설문Ⅳ

##### Ⅳ. 다음을 일본어로 바꾸어 주세요.

1. 좀 더 천천히 말해주세요. 2. 꼭 가고 싶습니다. 3. 점점 더워질 겁니다. 4. 아마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5. 많이 걸어서 피곤했습니다. 6. 아무리 매워도 괜찮습니다. 7. 더 분발하자. 8. 매일 꼭(반드시) 3시간은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 친구는 아직 오지 않는다. 10. 여기에서 김씨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11. 상당히 변화해졌습니다. 12. 완전히 익숙해졌습니까? 13. 전혀 모르겠다. 14. 이 영화가 훨씬 재미있다. 15. 그는 계속 집에 없다. 16. 두 사람은 만나면 꼭 싸운다. 17. 그건 좀...(거절이나 부정할 때) 18. 어서 들어오세요. 19. 아주 좋았어. 20. 만약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 3.3.3 [설문Ⅲ]의 내용 및 분석

[설문Ⅲ]은 대표적인 정도부사「たいへん, とても, 非常に」의 구문적 특징과 그에 따른 공기(共起)제한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사용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도의 큼>을 나타내는 이외의 부사(「かなり, けっこう, ずいぶん, だいぶ……」)를 포함하여 정도부사의 문(文)종류 및 술어와의 공기조건에 관한 학습자의 정용(正用)과 오용(誤

5) 괄호 안의 번호는 설문의 해당문항을 나타내며, <표3>의 문항번호와 동일하다. 또한 각 문항에서 제시한 부사 이외의 동일용법의 부사는 정답으로 처리한다.

用)을 파악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자료3]설문Ⅲ<sup>6)</sup>

Ⅲ. 「たいへん/とても/非常に」의 사용법으로 적절한 것에 ○를 하세요.

1. ( )今日はたいへん寒くありません。 2. ( )チャンさんは非常に努力家です。 3. ( )とてもあわてると、危ないですよ。 4. ( )この料理はとてもおいしいですね。 5. ( )大学は駅からたいへん北にあります。 6. ( )たいへん頑張ります。応援してください。 7. ( )この区役所はたいへん現代的な建物ですね。 8. ( )日本語がたいへんわ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 9. ( )父は私の結婚をたいへん喜んでくれました。 10. ( )とても疲れましたから、少し休みましょう。 11. ( )とても早く帰って来てください。待っています。 12. ( )そちらよりこちらのほうがたいへんいいですよ。 13. ( )この赤ちゃんはとてもよくミルクを飲みますね。 14. ( )私の身長と弟の身長はたいへん同じぐらいです。 15. ( )試験に合格するよう、非常に勉強しています。 16. ( )時間がありませんから、非常に急いでください。 17. ( )セーターを洗濯したら、とても縮んでしまいました。 18. ( )友達が無事退院したと聞いて、たいへん安心しました。 19. ( )どこからか、たいへんにぎやかな音楽が聞こえてきます。 20. ( )とてもお世話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1. ( )とても天気がわるいですから、出掛けるのはやめましょう。 22. ( )この靴は高いですから、たいへんお金がないと買えませんよ。 23. ( )非常に国に帰っていませんから、今年の夏は一度、帰るつもりです。 24. ( )彼は若いとき非常に苦労しましたが、今は幸せに暮らしています。 25. ( )ここは病院ですから、たいへん大きな声で話さないでください。

6) 新屋映子 外2(김선희 譯)(2003) 『일본어 교과서의 함정』 J&C pp.190-198

## 4. 분석결과 및 지도방안

### 4.1 [설문1]

<표1> [설문 I] 오답율<sup>7)</sup>

문 항	오답율			문항별 오답내역 비율		
	교양 (79명)	전공 (122명)	총계 (201명)	a	b	c
1	17(21.51) <sup>8)</sup>	22(18.03)	39(19.40)	18(50)		18(50)
2	3(3.79)	10(8.19)	13(6.46)	5(45.45)		6(54.54)
3	17(21.51)	28(22.95)	45(22.38)		18(43.90)	23(56.09)
4	19(24.05)	21(17.21)	40(19.90)	31(86.11)	5(13.88)	
5	27(34.17)	43(35.24)	70(34.82)	28(41.79)		39(58.20)
6	38(48.10)	41(33.60)	79(39.30)		40(68.96)	18(31.03)
7	10(12.65)	14(11.47)	24(11.94)	10(45.45)	12(54.54)	
8	15(18.98)	23(18.85)	38(18.90)	16(57.14)	12(42.85)	
9	34(43.03)	56(45.90)	90(44.77)			
9-1				56(84.84)	10(15.15)	
9-2					17(48.57)	18(51.42)
10	17(21.51)	22(18.03)	39(19.40)	11(34.37)	21(65.62)	
11	29(36.70)	37(30.32)	66(32.83)		47(82.45)	10(17.54)
12	30(37.97)	22(18.03)	52(25.87)	16(48.48)	17(51.51)	
13	22(27.84)	21(17.21)	43(21.39)		20(57.14)	15(42.85)
14 <sup>9)</sup>	76(96.20)	118(96.72)	194(96.51)	78(40.83)	41(21.46)	72(37.69)
15	79(100)	122(100)	201(100)	97(48.25)	46(22.88)	58(28.85)

상기에서 오답율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14, 15번이 타 항목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항목에서 엇볼 수

- 7) 오답율에서 무표기는 오답으로 처리, 문항별 오답내역비율에서 무표기는 제외하였다.  
 8) 앞 숫자는 오답인원을, 괄호 안은 백분율(사사오입 없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나타낸다.  
 9) 14번은 a와 c, 15번은 b와 c 모두 표기한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오답내역에서의 14번 a, c와 15번 b, c는 오답이 아닌 한 개만을 표기한 비율이다.

있는 것은 학습자가 정도부사의 평가성을 인지하고 있는가이며, 40%이상의 학습자는 「うっとうしい素敵だ<sup>10)</sup>」가 지니는 긍·부정의 평가와 상관없이 「ずいぶん」을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를 환언하면 대부분의 학습자는 「ずいぶん, なかなか, 非常に」의 공통적 의미기능 이면(裏面)의 정도부사의 평가성에 관한 인식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전적 의미를 숙지하는 것만으로 학습자가 적절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문장의 적격성을 가지는 정도부사의 취사선택은 상당히 난해한 항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가 실제 장면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성을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자의 주관이 정도부사에 어떻게 투영되어 사용되는가 하는 운용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지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30%이상의 오답율을 보인 5, 6, 9, 11번과 오답내역비율에서 80% 이상의 쓸림현상이 나타난 4, 9-1, 11번을 살펴보기로 한다.

5번에서는 「全然」과 동사 「わかる」와의 수식관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학습자가 많았는데, 이는 회화에서 「全然おいしい」와 같이 긍정과 호응을 이룬 강조표현으로도 사용되어 혼동이 야기된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a 「たくさん」은 양(量)적 의미소성을 지닌 정도부사로서 순수정도(혹은 질(質)적정도)의 술어와의 공기는 불가하다. 이는 정도부사의 의미소성(意味素性)에 따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오용으로 보인다.

6번에서는 「ずっと」와 「いちばん」과의 혼동이 나타났으며, 이는 2자(者)비교문에서 최상급 비교정도부사를 잘못 사용한 예로 비교문에 따른 비교(比較)정도부사의 차이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9번의 첫째 항목에서는 오답율과 함께 오답내역에서 「最近」의 쓸림현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후속문장의 상태변화표현과의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즉 미래시점을 향한 상태시작을 암시하는 「これから」와 단순히 기준시점에 가까운 시간 폭을 나타내는 「最近」과의 부시간 용법차이로 인한 오용 발생으로 보인다.

이어 학습자는 4번 「とても」를 정도의 크를 나타내는 의미기능 중심으로

10) 「うっとうしい素敵だ」의 두 단어의 의미는 모두 고지함.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수정도부사는 부정(否定)과의 공기가 제한적이며 따라서 정도부사의 의미기능과 함께 의미소성에 따른 분류와 이에 따른 구문적 특징에 관한 지도가 필요하다.

11번은 「きっと」와 「ぜひ」의 용법상 혼동으로 특히 초급학습자의 경우 어휘 학습시 한국어와의 1:1의미관계로 파악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유의어 사용에서의 혼용이 빈번하게 된다. 따라서 유사관계의 부사학습시에는 부사간 용법차이에 중점을 두어 지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4.2 [설문Ⅱ]와 [설문Ⅳ]

<표2> [설문Ⅱ] 오답율

문항	오답율		
	교양(69명)	전공(67명)	총계(136명)
1	9(13.04)	8(11.94)	17(12.50)
2	5(7.24)	7(10.44)	12(8.82)
3	16(23.18)	13(19.40)	29(21.32)
4	17(24.63)	21(31.34)	38(27.94)
5	9(13.04)	9(13.43)	18(13.23)
6	13(18.84)	16(23.88)	29(21.32)
7	5(7.24)	8(11.94)	13(9.55)
8	10(14.49)	8(11.94)	18(13.23)
9	31(44.92)	25(37.31)	56(41.17)
10	30(43.47)	19(28.35)	49(36.02)
11	2(2.89)	6(8.95)	8(5.88)
12	6(8.69)	3(4.47)	9(6.61)
13	12(17.39)	15(22.38)	27(19.85)
14	16(23.18)	9(13.43)	25(18.38)
15	20(28.98)	30(44.77)	50(36.76)
16	14(20.28)	21(31.34)	35(25.73)
17	13(18.84)	22(32.83)	35(25.73)
18	22(31.88)	21(31.34)	43(31.61)
19	11(15.94)	17(25.37)	28(20.58)
20	26(37.68)	25(37.31)	51(37.50)

먼저 [설문Ⅱ]에서 가장 높은 오답율을 보인 항목은 9번이다. 「たぶん」은 소위 진술부사로서 일반적으로 화자의 주관에 근거한 가능성의 추량을 나타내는 모달리티와 관계하며, 학습자에게 이를 숙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추량표현과의 호응을 염두하여 「たぶんおいしいかもしれません」(교2-211), 「たぶん彼は来ないかも」(교2-1)와 같은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たぶん」은 가능성이 높은 추량표현으로서 「~でしょう/~だろう/~と思う/だ」와 같은 문말(文末)표현과 주로 호응을 이루고, 가능성이 낮은 추량을 나타내는 「かもしれない」는 「ひょっとしたら/もしかしたら」와의 연결이 용이함에 유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 항목에서는 무응답(누락)으로 인한 오용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비추어 볼 때 「たぶん」의 의미와 용법이 학습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의 30%이상의 오답율이 나타난 항목으로, 우선 10번은 「だんだんしました」(전-1), 「だんだんねむいです」(교2-4)와 같이 변화를 나타내는 문말표현과의 비(非)호응이 눈에 띄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だんだん」의 점진적 상태변화를 강조하여 「~ようになる/~く(に)なる/~てくる」등과의 연결 지도가 필요하다.

15번은 「まだ終わらない」(전-3), 「まだ彼は来なかった」(교2-2)와 같이 동작의 미완료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まだ~(し)てない」와 「まだ~(し)ない」와의 사용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もう)たべましたか」와 같은 의문문의 부정 대담에서의 혼동이 많으므로 이를 예로 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해 나가도록 한다.

18번은 문장누락과 함께 「そんなことはよくないです」(교2-4), 「よくないよ」(교2-1)와 같이 I형용사 활용형 「よく」와의 혼동이 초급학습자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사와 I형용사 「よく」와의 비교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번은 「もし、ふくろがありますか」(전-4), 「もし、〇〇さんですか」(전-3)와 같이 「~たら/~ば/~なら」등의 조건표현과의 호응미흡과, 「もしもし」와의 단순 형태상 혼동으로 인한 「はい、もしもし」(전-2), 「もしもし」(교2-1)와 같

11) 「교」는 교양, 「전」은 전공을, 「교1」혹은 「교2」는 교양1, 2과정의 표시이며, 뒤 숫자는 학년을 나타낸다. 단 학년 표기가 없는 경우는 「無」로 표기한다.

은 오용이 초급학습자에게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설문Ⅳ]에서는 오용유형을 누락, 혼동, 오(誤)형태, 기타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누락은 문장전체누락과 부사만 누락한 경우로 나누고, 혼동은 유사용법 및 유의어에 의한 혼용, 오형태는 탁음·축음·장음의 탈락 혹은 부가와 이외의 한자표기오류 혹은 단순 오자(誤字) 등으로 세분하였다. 이외의 불필요한 조사첨가나 호응불일치, 부사위치(어순) 등에 인한 오용은 기타로 처리하였다.

<표3>오용 유형별 분류<sup>12)</sup>

문항	누락		혼동	오형태		
	전체	부사		탈락	부가	誤字
1-1		2(2.66)	1(1.33)			
		7(11.11)				
1-2		6(8.00)	3(4.00)	5(6.66)		
		1(1.58)	1(1.58)	3(4.76)		
1 <sup>13)</sup>	16(21.33)					
	2(3.17)	2(3.17)				
2	7(9.33)	3(4.00)	10(13.33)	3(4.00)		
	3(4.76)	3(4.76)	15(23.80)		1(1.58)	1(1.58)
3	22(29.33)		25(33.33)			1(1.33)
	3(4.76)	1(1.58)	14(22.22)	2(3.17)		1(1.58)
4	22(29.33)	2(2.66)	3(4.00)		2(2.66)	1(1.33)
	5(7.93)	3(4.76)	3(4.76)	1(1.58)	1(1.58)	1(1.58)
5	26(34.66)	4(5.33)	5(6.66)			1(1.33)
	9(14.28)	1(1.58)	14(22.22)		1(1.58)	
6	17(22.66)	7(9.33)	8(10.66)			
	10(15.87)	9(14.28)	13(20.63)			1(1.58)
7	23(30.66)	2(2.66)	4(5.33)	3(4.00)		
	10(13.33)	2(3.17)	6(9.52)	2(3.17)		
8	20(26.66)	7(9.33)	7(9.33)	1(1.33)		1(1.33)
	5(7.93)	3(4.76)	6(9.52)	3(4.76)		1(1.58)
9	8(10.66)	4(5.33)	1(1.33)	4(5.33)		1(1.33)
	2(3.17)	1(1.58)	1(1.58)	3(4.76)		1(1.58)
10	13(17.33)	6(8.00)	9(12.00)			7(9.33)
	4(6.34)		12(19.04)		1(1.58)	4(6.34)
11	35(46.66)	1(1.33)	4(5.33)			1(1.33)
	16(25.39)	3(4.76)		1(1.58)		1(1.58)

12) 각 문항의 첫 줄은 교양, 둘째 줄은 전공을 나타낸다.

문항	누락		혼동	오형태		
	전체	부사		탈락	부가	誤字
12	33(44)	1(1.33)	4(5.33)	4(5.33)	2(2.66)	
	19(30.15)		4(5.33)		2(2.66)	2(2.66)
13	8(10.66)			3(4.00)		3(4.00)
	3(4.76)	1(1.58)		1(1.58)		
14	17(22.66)	13(17.33)	6(8)			
	5(7.93)	10(15.87)	6(9.52)			
15	21(28)	4(5.33)	2(2.66)	2(2.66)		2(2.66)
	4(6.34)	3(4.76)	6(9.52)	1(1.58)		1(1.58)
16	39(52)	4(5.33)	9(12)	1(1.33)		
	7(11.11)	5(7.93)	7(11.1)		1(1.58)	1(1.58)
17	14(18.66)	3(4.00)	1(1.33)			6(8.00)
	5(7.93)	3(4.76)	1(1.58)			5(7.93)
18	27(36.00)	28(37.33)	1(1.33)	2(2.66)		
	11(17.46)	26(41.26)	1(1.58)	2(3.17)		
19	28(37.33)	4(5.33)	16(21.33)	1(1.33)		
	10(15.87)	9(14.28)	11(17.46)			1(1.58)
20	29(38.66)	5(6.66)			2(2.66)	
	10(15.87)		3(4.76)			

먼저 누락에서는 「きっと, ずいぶん, すっかり, どうぞ, とても, もし」등이 있으며 이들은 전반적으로 교양에서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학습력과 학습시간 등으로 인한 전공과 교양학습자의 기습(既習)어휘력과 문장구성능력의 차이로 여겨진다. 이 중 「すっかり」와 「どうぞ」(「∅おはいりください」(전-2))는 문(文)전체누락 및 부사누락에서 30%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どうぞ」는 의뢰·권유·기원 등의 완곡(婉曲)표현으로서의 의미기능을 강조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혼동에서는 3번 「もっと暑くなりますよ」(교-4), 「どんどんあつくなります」(교-2)(전-1)와 같이 「どんどん, もっと」와의 혼용이 눈에 띄었다. 주목할 점은 전공자들의 오용율이 대체적으로 높기 나타난 것으로 이는 전공자들의 누락율이 교양학습자보다 낮은 점, 즉 적극적인 부사사용으로 인한 오용율의 상승과 함께 어휘량 증가에 따른 유의어의 사용구분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한다.

오형태에서는 「ともだちはまた来ない」(교-1), 「友達はまだきてない」(전

13) 1번 부사 전체누락.

-2)와 같은 오용이 보였다. 이는 「まだ」의 탁음탈락으로 처리하였으나 부사「また」와의 혼동 가능성도 높아 이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기타로는 10번「ここで金さんとはじめてでございました」(전-2)와 같은 오형성이나 「たぶん」의 호응관계로 인한 오용이 나타났다.<sup>14)</sup> 그러나 진술부사의 호응으로 인한 오용은 많지 않았으며, 이는 조건작문의 특성상 이미 호응관계가 제시된 점에 一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たぶん」「もし」의 오용율이 [설문Ⅱ]와 상반된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 4.3 [설문Ⅲ]

<표4> [설문Ⅲ]의 응답율

문항	오답율		
	교양(78명)	전공(109명)	총계(187명)
1	7(8.97)	18(16.51)	25(13.36)
2	40(51.28)	56(51.37)	96(51.33)
3	12(15.38)	18(16.51)	30(16.04)
4	6(7.69)	3(2.75)	9(4.81)
5	28(35.89)	29(26.60)	57(30.48)
6	15(19.23)	29(26.60)	44(23.52)
7	54(69.23)	60(55.04)	114(60.96)
8	24(30.76)	39(35.77)	63(33.68)
9	61(78.20)	69(63.30)	130(69.51)
10	24(30.76)	36(33.02)	60(32.08)
11	19(24.35)	32(29.35)	51(27.27)
12	18(23.07)	26(23.85)	44(23.52)
13	25(32.05)	47(43.11)	72(38.50)
14	18(23.07)	28(25.68)	46(24.59)
15	28(35.89)	41(37.61)	69(36.89)
16	21(26.92)	35(32.11)	56(29.94)
17	30(38.46)	38(34.86)	68(36.36)

14) 지면관계상 생략하며, 이에 해당하는 오용율은 「たぶん」1(1.33)(교)/1(1.58)(전), 「はじめて」2(2.66)(교)/4(6.34)(전), 「もう少し」1(1.58)(전), 「もし」6(9.52)(전)이다.

문항	오답율		
	교양(78명)	전공(109명)	총계(187명)
18	43(55.12)	47(43.11)	90(48.12)
19	46(58.97)	72(66.05)	118(63.10)
20	40(51.28)	37(33.94)	77(41.17)
21	41(52.56)	60(55.04)	101(54.01)
22	24(30.76)	31(28.44)	55(29.41)
23	19(24.35)	23(21.10)	42(22.45)
24	47(60.25)	60(55.04)	107(57.21)
25	17(21.79)	39(35.77)	56(29.94)

[설문Ⅲ]은 정도부사의 구문상의 특징과 유사한 정도부사의 사용구분을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가장 난해함을 표했던 설문이었으며, 분석결과 역시 높은 오답율을 보였다. 특히 교양과 전공을 불문하고 2, 7, 9, 19, 21, 24번에서의 오답율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대체적으로 교양 학습자들의 오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항목의 공통점은 정도부사와 공기(共起)하는 술어의 어휘적 조건을 묻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도부사는 용언을 수식하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여 그 정도성을 한정하며 학습자에게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정도부사와 형용사 혹은 상태성 동사와의 정형화된 공기관계의 제시만으로는 정도부사의 적절한 사용이 학습자에게 있어 상당히 난해함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정도부사와 술어와의 결합 조건을 [정도성(程度性)을 지니는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확장하여 설명함과 동시에 정도성을 지니는 어휘의 예시를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사용 빈도를 높여 정착해 나갈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는 오답율이 가장 낮았던 4번 항목에서 나타나듯이 초급 단계에서 다양한 예문과 함께 빈번하게 제시되는 정도부사의 사용이 학습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으로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정도부사가 지니는 유형적 의미인 [정도의 큼(大·高)] 이외의 각각의 정도부사의 개별적 특성 및 차이, 예를 들면 설문에서 제시한 「とても, たいへん, 非常に」를 비롯하여 「かなり, けっこう, ずいぶん, だいぶ, なかなか」등을 비교 설명하여 학습자가 상황에 적합한 정도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 5. 결론

이상 초·중급일본어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일본어부사의 오용을 4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오용빈도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Ⅰ]에서는 「ずいぶん, なかなか, 非常に」의 평가성, 「ずっと」의 의미소성, 「全然, とても」의 공기관계, 「きっと, ぜひ」의 혼용에 따른 오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정도부사의 평가성에 따른 사용구분에서의 오용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설문Ⅱ]에서는 「たぶん, だんだん, まだ, もし」의 문말(文末)표현과의 불호응(不呼應)이, [설문Ⅳ]에서는 「すっかり, どうぞ」등의 문장 및 부사 누락으로 인한 오용과 「いくら(~ても), ぜひ, たくさん, だんだん」등의 유의어와의 혼용으로 인한 오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설문Ⅲ]에서는 「たいへん, とても, 非常に」로 대표되는 정도부사의 술어 및 문의 종류, 문체상의 차이 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중 정도부사와 술어와의 공기관계에서의 오류가 높았다.

이상에서 정도부사는 각 부사의 의미소성과 함께 평가성의 파악, 술어와의 공기조건, 진술부사는 문말표현과의 호응과 유사용법과의 구별, 양태부사는 피수식어와의 의미적 연관성으로 인한 오용이 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언하면 학습자의 부사학습시의 유의점으로 교사는 이러한 특성에 주의를 기울여 지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부사는 문장의 필수요소가 아닌 만큼 학습자의 회피나 누락, 동일부사의 반복적 사용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 실제 담화에서의 부사의 의미기능과 부사간 용법차이를 학습자가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보다 필요하다.

이를 통한 학습자의 올바른 부사선택과 사용은 부사의 혼용과 오용으로 인한 미스커뮤니케이션(mis-communication)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실천 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미흡했던 데이터의 양(量)적 보완과 함께 중급 이상의 부사의 오용조사와 분석은 이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參考文獻>

- 조남성(2003)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오용의 분석과 평가』 『日語日文學研究』第47輯 韓國日語日文學會 pp.339-364
- \_\_\_\_\_ (2006) 『일본어의 오용 분석』 보고서 pp.193-315 · 395-422
- 최은희(2013) 『한국에서의 일본어문법교육의 연구 현황과 전망』 『日本學研究』第39輯 檀國大學校日本研究所 pp.405-430
-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編(2011) 『민나노 日本語(제2단계)』 시사일본어사 p.128
- 新屋映子 外·김선희 譯(2003) 『일본어 교과서의 함정』 J&C pp.190-198
- 市川保子(2000) 『続・日本語誤用例文小辞典-接続詞・副詞』 凡人社 pp.173-391
- 木田真理·清水まさ子(2013) 『学習者の文法と教師の文法-ノンネイティブ日本語教師研修を通して』 『日本語学』vol.32-7 明治書院 pp.50-60
- 工藤 浩(1983) 『程度副詞をめぐる』 渡辺夫 編 『副用語の研究』 明治書院 pp.176-198
- 小池康(1997) 『副詞の共起変化の一考察-モダリティと共起する副詞を中心に』 『筑波応用言語学研究』4 pp.69-81
- 小林ミナ(2013) 『日本語教育文法の研究動向』 『日本語学』vol.32-7 明治書院 pp.4-17
- 中田智子(1991) 『談話における副詞のはたらき』 『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19副詞の意味と用法』 国立国語研究所 pp.81-107
- 西原鈴子(1991) 『副詞の意味機能』 『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19副詞の意味と用法』 国立国語研究所 pp.47-80
- 仁田義雄(2002) 『新日本語文法選書3 副詞的表現の諸相』 くろしお出版 pp.1-300
- 野田尚史(2013) 『「オーダーメイドの文法」をめざして』 『日本語学』vol.32-7 明治書院 pp.62-71
- 林奈緒子(1996) 『意味素性による程度副詞の記述』 『筑波応用言語学研究』3 pp.13-26
- 森田良行(1995) 『日本語の視点』 創拓社 pp.78-103

접 수 일: 2017년 12월 31일

심사완료: 2018년 01월 30일

게재결정: 2018년 01월 31일

<Abstract>

## **A study on the Error of Japanese Adverb and Teaching Method**

—Focusing on the beginner & intermediate level of Korean Lear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isuse of Japanese adverbs in elementary and intermediate Japanese learners. The frequency and causes of misuse in 4 sections are analyzed as follows.

In terms of The evaluation of [survey I] 『zuibun, nakanaka, hizyouni』, meaning of 『zutto』, Co-occurrence relation of 『zenzen』, verifiable that it was misused when it was mixed with 『kitto, zehi』, especially, misuse rate was very high in the usag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evaluation of degree adverb.

In terms of The evaluation of [survey II], the unfriendly response to the expression of 『tabun, dandan, mada, mosi』.

In terms of The evaluation of [survey IV], misuse due to missing sentences and adverbs such as 『sukkari, douzo』 and the misuse by synonyms was relatively high such as 『ikura(~temo), zehi, takusan, dandan』.

In terms of The evaluation of [survey III], it is possible to look at the types of adverbials and the kinds of inquiries and the differences in the style of the adverbs, which are represented by 『taihen, totemo, hizyouni』.

The errors in the Co-occurrence relation between the double degree adverb and the predicate were high.

As a result, it is required focusing teaching that the degree of adverbial affects the meaningfulness of each adverb, together with the evaluation of the evaluation, the Co-occurrence relation with the predicate, the adverb of the sentenc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response and the expression of the sentence.